

예배 및 모임안내

2022-09 2022년 2월 27일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06	03. 13	03. 20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노지민 성도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노지민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 2월 축복인사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성도 간에) 년 최고야 힘내!(자신에게)
- 찬양예배 - 다음 주일(6일)은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 2월 생일 - 김미자 권사
- 재외국민투표 - 대통령 선거(2월23~28일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신분증 지참)
- 코로나 대응 - 규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십시오(Luca 확인)
교회 내 교제가 제한되고 있으나 성도 간 격려와 돌봄에 힘써 주십시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49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민혜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민 14 : 1 - 3(구p217).....김민혜 성도
 (4.Mose 14:1-3)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제자입니까?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Gemeinde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 기도제목

1. 제자다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와 한국의 대선을 위해(3월 9일 투표)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재물에 명예를 더하는 인생

백화점 왕으로 불린 미국의 John Wanamaker(1838~1922년)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독특한 마케팅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혈을 기울여 투자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YMCA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Philadelphia는 마약과 담배와 음주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YMCA는 워너메이커를 중심으로 '금주 서약 운동'을 벌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해 사회적으로도 큰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YMCA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워너메이커는 전 세계 곳곳에 YMCA 빌딩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사업을 통해 모은 돈을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23대 대통령인 Benjamin Harrison으로부터 체신부 장관직을 요청 받았을 때 '주일성수'를 조건으로 제안을 수락했고, 임기 4년 동안 매 주일마다 Washington D.C.와 Philadelphia를 오가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9세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한 그는 체신부 장관 재임 때에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67년 동안 이어 갔습니다. Wanamaker는 백화점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에 맞는 봉사나 기부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단지 돈만 아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헐벗고 상처투성이인 삶으로 세상에서는 약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자신의 부를 즐기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을 마감한 후 부족함 뿐이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명예를 얻었으나 부족함이 없던 부자는 명예와 천국을 잃었습니다. 재물이 몸을 즐겁게 하는 시간은 고작 70년으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명예는 영생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참된 십일조 부자 / 이성준 작가
(재정 상담가)

*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 William Gurnall(영국 청교도 목사, 1616~1679)